

편집 및 발행인 : 김중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신수용 ·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80 E-mail : shinsy@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4월 LA·LB항 컨테이너 장치기간 연내 최저치 기록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아마존 경쟁력 제고 위해 물류 부문 강화

● 유럽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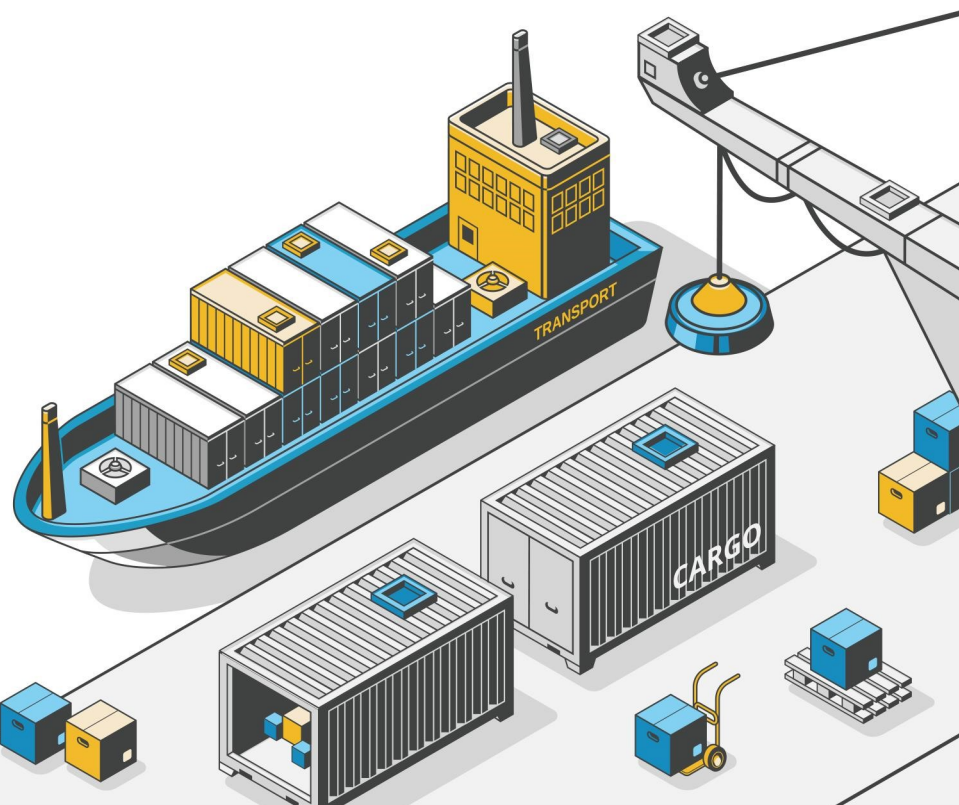
- 독일 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유럽 도로 화물 운임지수 하락세 유지

● 심층분석

- 영국과 캐나다, 해운·화물 녹색해운회랑 실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024년 선박관리(SM)시장 동향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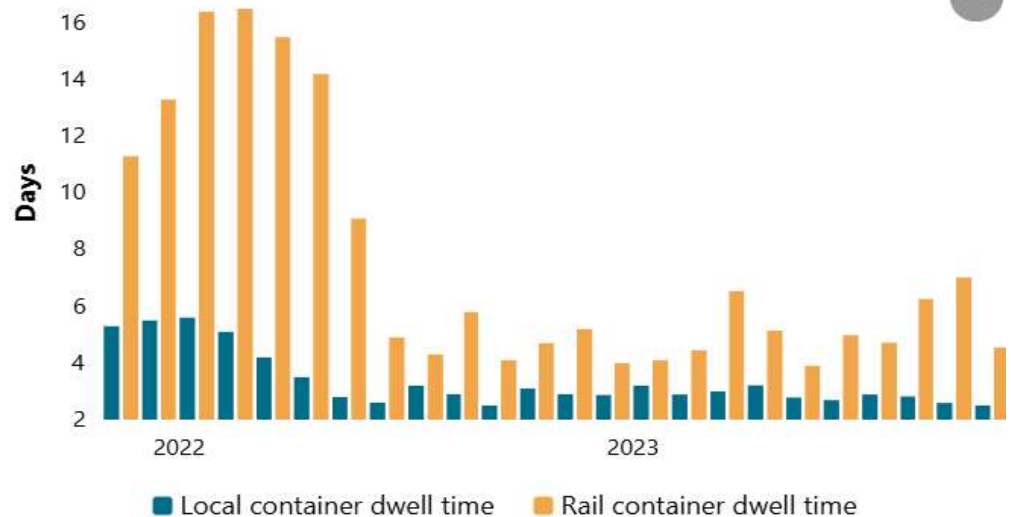
4월 LA·LB항 컨테이너 장치기간 연내 최저치 기록

▶ LA·LB 항의 컨테이너 장치기간이 연내 최저치를 기록함

- 4월 철도 컨테이너 장치기간이 평균 4.55일로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트럭으로 부두를 떠나는 컨테이너의 체류 기간은 평균 2.5일로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4월 아시아발 컨테이너 수입량은 664,095TEU로 3월보다 17%, 작년 4월에 비해 7.8% 증가했으나, 컨테이너 장치기간은 짧아짐
- 이는 BNSF와 Union Pacific(UP) 철도가 LA·LB항에서 중부내륙 간 Inland Point Intermodal(IPI)에 선로, 야드 및 기관차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많은 장비를 투입한 노력의 일환임
- BSNF 대변인은 수요가 급증하거나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비 기관차 및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
- UP 대변인 또한 운송 동향을 면밀히 예측하기 위해 미국 및 해외 터미널운영자들로부터 수입 화물량에 대한 주간 계획을 송부받아 이를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따른 배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LA·LB 터미널 및 철도의 컨테이너 장치기간

LA-LB terminal and rail dwell times (PMSA)



Source: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 2024 S&P Glot

자료 : <https://www.joc.com>(검색일: 2024.05.27.)

▶ 업계 분석가 및 관계자들은 금년의 경우, 여러 외부 환경에 의해 미국 수입 화물의 성수기가 일찍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함

- 분석기관인 Hackett Associates의 Daniel Hackett은 6월부터 개학 및 가을 상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 아시아 선적항들의 지연 및 장비 부족 발생과 더불어 파나마수에즈 운하의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및 아시아-미국 항로의 유효 선복량(Effective capacity) 감소 및 운송 시간 증가로 인해 소매업자들은 구매주문의 일부를 늘려서 발주함
- 올해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증가를 이끌 요인으로 미국 소비자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
- Hackett Associates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미국 창고의 초과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1분기 미국 수입은 2023년 1분기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미 동해안은 11%, 미 서해안은 24%로 각각 증가함
- 이번 달 DaryTech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익명의 트럭·물류 임원은 금년 성수기가 일찍 시작될 경우, LA·LB항의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수입량 급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할 것이며, 성수기가 되면 터미널 인력 교대 문제로 인해 컨테이너가 적체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아마존, 경쟁력 제고 위해 물류 부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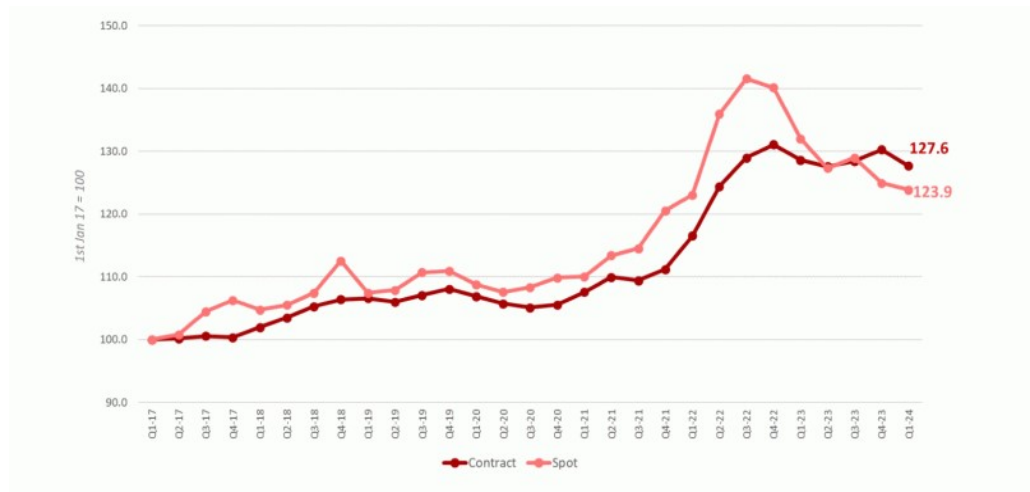
- 아마존(Amazon)이 월마트(Walmart), 셰인(Shein), 테무(Temu) 등 경쟁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물류 확장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아마존은 택배 배송 속도를 높이고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industrial property) 취득과 유통망(distribution network) 개편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미 전역에 걸쳐 약 4억 13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은 올해에만 미국에서 1,600만 평방피트가 넘는 새로운 창고 공간의 임대·구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아마존은 부동산 확장과 더불어 유통망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자사의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9개 지역으로의 전환 전략을 발표함
 - 해당 전략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더 근접하게 배치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마존은 2023년 4분기 미국 내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아마존은 새로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재고를 보관하도록 자체 및 타사 판매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60만 ~ 100만 평방피트에 이르는 대형 창고인 인바운드 수령 센터를 개설해 왔음
 - 또한 아마존은 시골 지역의 소규모 창고를 임대해 배송 거점(delivery stations)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라스트마일 운송비용을 최소화해 왔음
- 아마존의 이러한 물류 부문 및 구조 조정 노력은 부분적으로 월마트를 견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월마트 관계자는 미국 내 4,600개 이상의 매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10마일 이내에 매장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신생 기업인 셰인(Shein)과 테무(Temu)의 파격적인 할인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아마존은 물류 확장을 통해 미국 유통을 재편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패키지 배송 분야의 선두주자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자료 : <https://www.wsj.com/>(검색일: 2024.05.27.)

독일 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유럽 도로 화물 운임지수 하락세 유지

- 2024년 1분기 유럽 도로 화물 스팟운임지수와 계약운임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세
 - 2024년 1분기 유럽 도로 화물 스팟운임지수와 계약운임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1.1p와 2.6p 하락세를 기록
 - 스팟운임지수는 2022년 3분기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전년 동기 대비 8.2p 급락한 123.9(2017년 1분기 100 기준)를 기록함
 - 계약운임지수는 2023년 하반기 성장세로 반전한 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p 떨어진 127.6(2017년 1분기 100 기준)을 기록함

유럽 도로 화물 운임지수 (2017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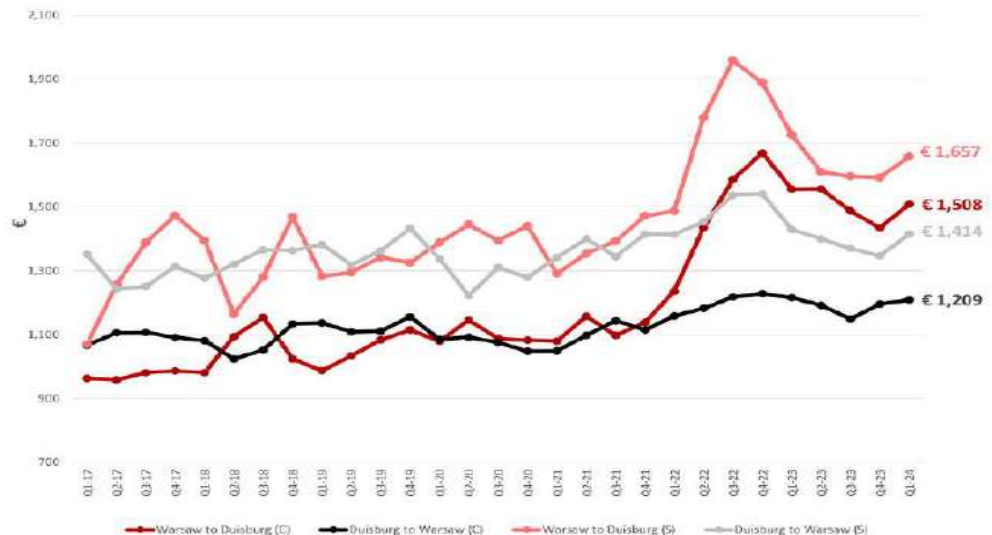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2024), The European Road Freight Rate Development Benchmark Q1 2024

- 도로 화물 운임지수 하락 원인으로 2023년 12월 대폭 인상된 독일 도로 통행료 지목
 - 2023년 독일 교통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트럭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3차 도로 통행료 규정 개정안(Third Amendment to Road Toll Regulations) 발표
 -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3.5톤 이상 대형트럭은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200유로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최대 5,600유로를 부담
 -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규제를 목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추세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1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3월에는 체코가 통행료를 소폭 인상

➤ 독일 도로 통행료 대폭 인상과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에 따라 독일 뒤스부르크~폴란드 바르샤바 양 노선 스팟운임과 계약운임 상승

- 유럽 도로 화물 운임지수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뒤스부르크~폴란드 바르샤바 노선의 스팟운임은 전 분기 대비 5.1% 상승해 1,414유로(1.30유로/Km)를 기록했으며, 계약운임 또한 전 분기 대비 1.1% 소폭 상승해 1,209유로(1.12유로/Km)를 기록
- 폴란드 바르샤바~독일 뒤스부르크 노선의 경우에도 스팟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1,657유로(1.53유로/Km)를 기록했으며, 계약운임도 5.1% 상승한 1,508유로(1.40유로/Km)를 기록
- TI(Transportation Intelligence)에 따르면 최근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유럽 소비자 신뢰(Consumer Confidence)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연초 독일산 제품 수요 증가와 독일 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양 노선 모두 스팟운임이 계약운임을 상회했다고 분석

독일 뒤스부르크~폴란드 바르샤바 도로 화물 운임 (2017년 1분기~2024년 1분기)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2024), The European Road Freight Rate Development Benchmark Q1 2024

영국과 캐나다, 해운 화물 녹색해운회랑 실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021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녹색해운회랑(GSC, Green Shipping Corridor)은 녹색해운목표(Green Shipping Challenge)로 확대되어 실제적인 계획이 수립 중임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에서 클라이드뱅크 선언(Clydebank Declaration)을 통해 논의가 시작된 녹색해운회랑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탄소중립이 적용된 선박이 기존의 인센티브 및 규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의 회랑'으로 정의됨(DNV)
 - 이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2022)에서는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제료를 추진 하고 지구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녹색해운목표(Green Shipping Challenge)로 이니셔티브가 확대되어 2023년에 개최된 COP28에서도 논의가 진행됨
 - 2050년까지 IMO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해운회랑은 기존 해운산업에 친환경 대안연료가 채택되는 것을 촉진하며, 특정 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2024년 2월 기준, 전 세계 57개의 녹색해운회랑 계획이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초기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DNV & Global Maritime Forum)

 - 2022년 기준 22개 이니셔티브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수정된 온실가스전략을 채택한 2023년에는 44개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업들의 탄소중립 연료의 활용이 더욱 시급해진 것으로 판단됨
 - 녹색해운회랑이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프로세스 중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이하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항만공사와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 간 협력으로 진행 중인 사례인 영국-아일랜드 간 녹색해운회랑 추진계획 및 거점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기반 해상-육상 물류회랑 구축 사례인 녹색화물회랑(Green Freight Corridor)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캐나다, 일본, 한국의 다자간 해운물류회랑 추진 사례인 북태평양녹색회랑컨소시엄 사례를 조사함
- 2024년 5월 영국 최초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2개 항로를 친환경 해운항로로 연결하고, 항만인프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및 전기 자동차에 공급하는 영국-아일랜드 간 녹색해운회랑 추진계획이 발표됨

 -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운행사인 Peel Ports Group과 해양부문의 독립적인 청정에너지 전문 기업인 NatPower Marine은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최초의 친환경 해운회랑 구축계획을 발표함

1) Green Shipping Corridor, 국내에서는 녹색해운 항로로 통용

- 첫 번째 녹색해운회랑은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Belfast)와 영국 북서부 헤이섬(Heysham)항로, 더블린(Dublin)과 버컨헤드(Birkenhead)항로가 포함됨
- 제안된 녹색해운회랑 프로젝트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20개 항만에 글로벌 전기충전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30억파운드(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NatPower Marine이 영국 최초의 상업용 전기선박(e-ship) 충전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으로 보고함
- 이번 계획을 통해 Peel Ports Group이 운영하는 항만에 장박한 전기 추진 선박이 청정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도록 8개 항만 모두에 해당 인프라를 개발·설치하기 위해 약 1억 파운드(약 1,742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상업용 전기자동차, 밴 및 HGV를 위한 충전인프라도 설치할 예정임
- 영국은 매년 3,000척 이상의 선박이 아일랜드를 오가며 230,000톤의 이산화탄소(CO2), 20,000톤의 질소산화물(NOx), 18,000톤의 황산화물(SOx)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글로벌 녹색해운회랑 이니셔티브 현황

More than 50 announced green shipping corridor initiatives



자료: DNV. Ke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a green shipping corridor. 2024.

- 필포츠그룹이 운영하는 Heysham항은 육상 플랜트, 장비 및 차량의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여, 영국 최초의 넷제로(Net-zero)항만이 되려는 계획을 추진중임
 - 2024년 초 Peel Ports Group은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회사인 이온(E.ON)사와 협력해 알렉산드리아 항만창고의 지붕을 포함한 항만에 소재한 건물옥상 전체에 최대 6만3000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중임
 - 2040년까지 넷제로 항만운영사를 지향하는 Peel Ports Group은 이번 영국-아일랜드 간 녹색해운 회랑 구축을 통해 해운분야에서 청정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하고, 화주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넷제로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됨

영국 항만에 NatPower Marine이 설치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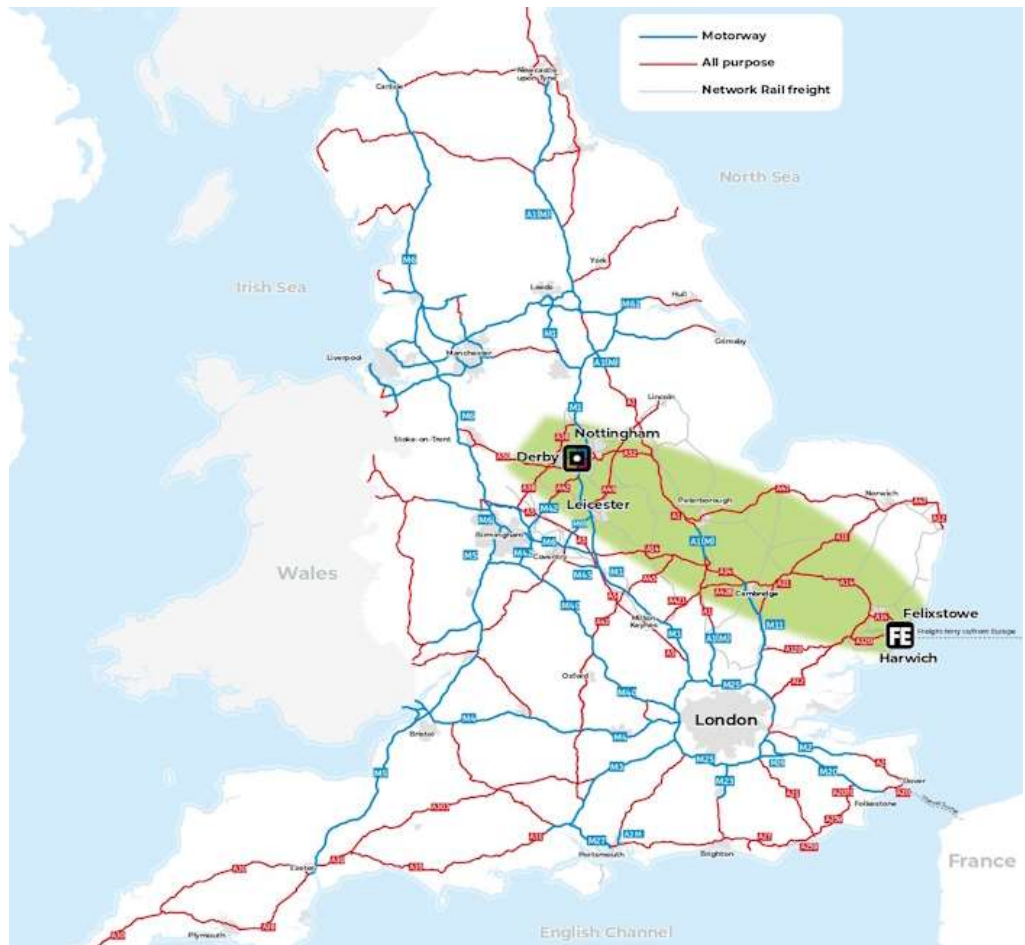
자료: NatPower Marine

- 2025년 5월 영국 내 주요 해상물류 인프라인 Freeport East와 내륙물류 인프라인 East Midlands Freeport 간에 친환경 기반 해상-육상 물류회랑인 녹색화물회랑 (Green Freight Corridor)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음

 -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Freeports Delivery Roadmap을 기반으로 Freeport East와 East Midlands Freeport 간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MOU)에는 친환경적인 첨단 물류회랑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파트너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위해 협력할 것을 논의함
 - 특히, 영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과 미들랜드 물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중심부 사이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린수소, 전기충전시스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 적용이 가속화 되어 녹색화물회랑이니셔티브(Green Freight Corridor Initiative)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24년 4월 캐나다, 일본, 한국 간 해운물류회랑의 탈탄소화를 위해 북태평양녹색회랑컨소시엄(NPGCC, North Pacific Green Corridor Consortium)을 결성함

 - NPGCC는 2023년 6월 캐나다 대표적인 광물회사인 Teck社가 일본에서 열린 G7 교통부 장관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교통부 장관과 함께 북태평양녹색회랑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작됨
 - 관련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탈탄소화 노력의 촉매제로서 컨NPGCC는 농산물, 금속, 제강 석탄을 포함한 다양한 화물의 탈탄소 운송을 위한 물류회랑을 개발하기 위해소시엄을 구축해 북미와 아시아의 저탄소 연료에 대한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탄소배출 감소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 발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물류회랑 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경로에 초점이 맞추어짐

영국의 Green Freight Corridor 개념도



자료: Hellenic shippi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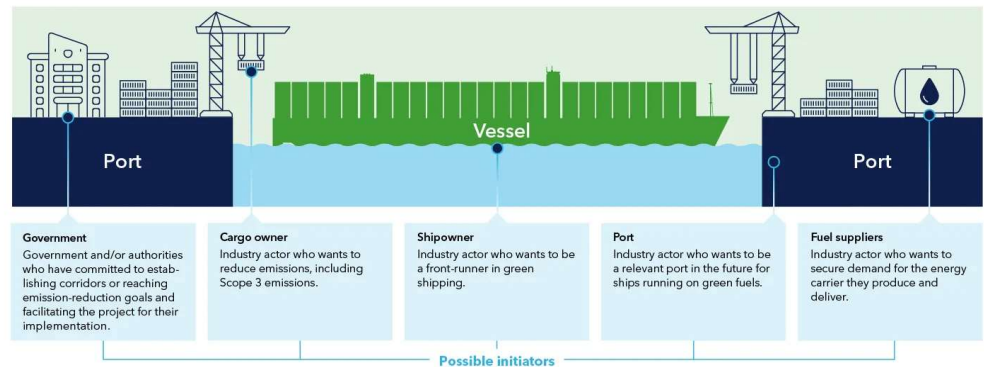
- 북태평양녹색화랑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제조업체, 철도 및 복합운송사, 선주사 및 선박 운영사, 항만공사, 친환경 기술보유 회사를 포함한 친환경 가치사슬의 다양한 기관이 포함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창립멤버로는 Canadian National Railway Company, Mitsubishi Canada Lt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NYK Bulk & Projects Carriers, Oldendorff Carriers, Prince Rupert Port Authority, Teck Resources Limited, Trigon Pacific Terminals, Vancouver Fraser로 구성됨
 - NPGCC는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비영리 조직으로 결성되었으며, 초기 NPGCC 회원은 밴쿠버 항만과 프린스 루퍼트 항만을 통해 매년 운송되는 1억 톤 이상의 대량 상품 중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해운회랑 구축 시 해당 물류회랑을 친환경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나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목표는 구축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한 설계 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녹색해운회랑 구축 시 초기 이해관계자는 정부, 화주, 선주, 항만공사, 연료 및 첨단솔루션 공급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한 이해관계자 별로 연료 생산 및 인프라 개발 증가, 기술 성숙도 및 비용 절감, 안전을 위한 규칙 및 규정 개발 가속화, 새로운 지원 정책 개발, 친환경 운송 서비스 및 친환경 계약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DNV)
- 성공적인 녹색해운회랑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연료 솔루션 및 관련 첨단기술을 테스트하고 입증 및 확장이 가능한 탈탄소화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요소임

녹색해운회랑 이해관계자별 목표

Possible initiators and goals



자료: DNV. Ke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a green shipping corridor. 2024.

참고자료: DNV. Ke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a green shipping corridor. 2024.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freeport-east-and-east-midlands-freeport-sign-green-freight-corridor-initiative/>, <https://www.northpacificgreencorridor.org/announcement-eng>, https://www.nyk.com/english/news/2024/20240416_01.html, <https://www.current-news.co.uk/natpower-marine-peel-ports-group-green-shipping-corridors/>,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06> (검색일 : 2024.05.28.)

2024년 선박관리(SM) 시장 동향

- ▶ 싱가포르 해운전문지 스플래쉬247이 발간한 '2024년 선박관리 시장 동향'은 글로벌 주요 선박관리회사의 관계자를 인터뷰해 업계 전체 및 주요 기업의 동향을 소개함

 - 선박관리회사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Crew-only management)와 이를 포함해 더 포괄적인 기술지원형 선박관리(Full technical management)로 구분함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5월 기준 포괄적인 기술관리형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규모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Top 8 선박관리회사(Anglo-Eastern, Fleet, Synergy, V.Group, BSM, OSM Thome, Wilhelmsen, Columbia)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실시함
- ▶ 인터뷰에 응한 Top 8 글로벌 선박관리회사의 대부분이 과거보다 선주 대상 영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1960년대 말 제3자에 의한 전문 선박관리 개념이 도입된 이래, 복잡한 무역과 규제 환경으로 인해 선박관리 업무의 복잡성이 커지고 다른 유형의 자산관리보다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가 높아지면서 제3자에 의한 선박관리회사의 역할 또한 확대됨
 - 그러나 선박관리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선박은 전 세계 상선대의 20%도 안 될 정도로 그 점유율이 낮은 실정으로, 여전히 선주 대상 영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음
- ▶ 2024년 5월 기준 선박관리회사가 full technical management를 하는 선박의 규모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음

 -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에서 공개한 Top 8 선박관리회사의 실적은 2023년 11월 기준 총 4,015척이었지만, 스플래쉬가 집계한 2024년 5월 기준 실적은 총 3,895척으로 6개월 만에 120척이 줄었음

세계 8위 선박관리회사 실적(Full technical management 기준)



자료: Lloyd's List 홈페이지 및 Splash247 홈페이지(검색일: 2024.05.20.)

➤ (Anglo-Eastern Group) 1974년에 설립된 Anglo-Eastern의 사내 부서(Anglo-Eastern Management Services)로 선박관리를 담당하다가 이후 독립해 현재 세계 1위의 선박관리 회사로 성장함

- Anglo-Eastern은 2024년 4월 그리스 Euronav의 선박 관리를 담당한 Euronav Ship Management Hellas를 인수한 후, Euronav가 관리하던 유조선의 선박관리 책임을 맡고 있음
- Mumbai에 있는 Anglo-Eastern의 주요 훈련 센터에는 이중 연료 엔진, LNG bunker링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가 설치되어 선원들에게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 훈련을 지원함
- Starlink Maritime을 통해 선박이 "상시 연결"되도록 하며, 선박과 해안 간의 원활한 통신을 촉진 함으로써 선박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가족이나 지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함

Anglo-Eastern Group 선대에 Starlink 설치



자료: Anglo-Eastern Group 홈페이지(검색일: 2024.05.20.)

➤ (Fleet Management Limited) The Caravel Group의 계열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세계 2위의 선박관리회사로 성장함

- 650척 이상의 선박을 관리하며, 27,000명 이상의 선원과 1,000명 이상의 육상 전문가와 함께 130개 이상의 선주에게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
- 에너지 및 산업용 원자재를 주로 거래하는 무역회사 Noble Group의 계열사로 1994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The Caravel Group에 인수됨
 - 2023년 7월, Jebel Ali에 본사를 둔 Transworld Group과 새로운 선박관리 합작투자회사인 Transworld Fleet Management를 설립하는데, 이는 선박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간 대표적인 제휴 사례임

- (Synergy Marine)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14,000명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3위 선박관리회사로 최근 화두가 된 컨테이너선 Dali의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
 - 2024년 3월 26일, Synergy가 관리하는 9,962 TEU급 컨테이너선 Dali가 볼티모어항만을 떠나는 중 정전사고로 인해 선박 운항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 볼티모어항만 내 가장 큰 다리와 충돌,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도로 보수 작업자 여섯 명이 사망하는 등 Synergy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최근 Wisdom Marine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대만 소유주의 건화물 선박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글로벌 선박관리회사로의 명망을 유지하고 있음

볼티모어항만 선박 충돌사고와 선박 Dali



자료: CBS(2024.5.20.), Cargo ship that caused Baltimore bridge collapse removed from site as cleanup continues

- (V.Group) 세계 4위의 선박관리회사로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V.Group Holdings Limited의 계열사로 1984년 설립되어 30개국에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두고 있음
 - 지난 몇 년 동안 V.Group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자체 인수 대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음

- 2023년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Belships Management(1983년 설립된 선사이자 선박관리회사)를 인수하면서 Belships가 자체 소유하거나 다른 선주의 건화물 선박을 관리하게 됨
- 2024년 4월 V.Group은 중동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오만에 사무소를 열었고, 2023년 말부터 탄소 크레딧 전문가인 Aither와 협력해 선주들에게 탄소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Bernhard Schulte Shipmanagement) 1955년 함부르크에서 설립된 해운사 (Schulte & Bruns)를 모태로 설립, 현재 75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Schulte Group의 자회사로서 세계 5위 선박관리회사에 선정됨

- BSM은 글로벌 상선대가 앞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고급 선원의 충원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M Smart Academ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 BSM Smart Academy는 해양대학교 항해, 기술, 전기 전공 학부 1학년생을 2학년부터 BSM 사관생도로 지정한 뒤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론지식과 기술교육 간 격차 해소에 노력함

➤ (OSM Thome) 2023년 1월에 OSM Maritime Group(노르웨이, 1989)과 Thome Group(싱가포르, 1963)의 합병을 발표한 후, 같은 해 5월에 당국의 승인을 얻어 세계 6위 선박관리회사로 재탄생함

- 이는 승무원 관리 차원에서의 OSM의 강점과 선박관리에 대한 Thome의 오랜 전문지식이 결합된 합병임
- 노르웨이의 아렌달에 본사를 둔 OSM Thome과 오슬로에 본사를 둔 Pherousa Green Shipping은 이미 배출가스 제로 추진 기능을 갖춘 63,000dwt급 울트라맥스 건화물선 6척의 설계 및 건조에 협력하고 있음

➤ (Wilhelmsen Ship Management) 1975년에 설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450척 이상의 선박과 9,200명의 현역 선원을 보유해 세계 7위 선박관리회사로 선정됨

- 2020년 WMS는 MPC Capital Group과 합작 투자를 통해 컨테이너선 중심의 선박관리회사인 Wilhelmsen Ahrenkiel Ship Management를 설립함
- 2022년 WMS는 유조선 선박관리에 특화된 Ahrenkiel Tankers를 인수한 뒤, 회사명을 Barber Ship Management로 변경하고 유조선 선박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운영함
- 그리고 2023년 12월, WMS와 MPC Capital은 Zeaborn Ship Management 회사의 10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Zeaborn은 함부르크, 리마슬, 싱가포르 및 마닐라에서 약 100척의 선대를 관료운영함
- Wilhelmsen Ship Management의 Carl Schou 대표는 선박관리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Columbia Ship Management) 1978년 키프로스에서 설립 후, 전 세계적으로 25개 이상의 관리대표 사무소, 승무원 대리점과 교육 센터를 갖추고 약 15,000명의 직원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8위 선박관리회사로 성장함
 - 고객이 원하는 모든 개별적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해양 서비스 및 물류(선용품), 레저 및 크루즈, 에너지, IT 및 첨단기술, 금융 등 기존 운영회사들과 선박관리기업 (Columbia Ship Management)을 통합해 Columbia Group으로 출범시킴
 - 2023년 10월 베트남에 새로운 인원 관리 대행사를 개설하고, 2024년 홍콩에 상장된 선주·운영자 Seacon Shipping Group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칭다오 내 선박회사의 중국 소유·운영 선박을 관리함
 - 2024년 초반에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해운·물류, 에너지, 레저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벤처 캐피탈 투자회사 Galactic Beacon Ventures를 설립함
 - CSM 그룹의 디지털 전략 관리, IT 플랫폼, 디지털 아젠다 개발 등을 전담하는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Blue Dynamics(BD)도 설립함
 - BD는 회사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 제작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CSM그룹에 제공하는데, 현재 개발된 솔루션(해상 및 선상) 포트폴리오 'CAPE'는 CSM의 선박 관리 애플리케이션, 회계, BI 솔루션, AMOS PMS/조달/QMS 등으로 구성됨

Columbia Group 계열사



자료: Columbia Ship Management 홈페이지(검색일: 2024.05.20.)

- 종합적으로 볼 때, 선박관리회사는 그간 수행해 온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선주 측, 고객 니즈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선박업/해운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제3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다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 많은 선박회사 및 해운사들이 내부적으로 담당부서를 두거나 자회사를 통해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주들은 직접하는 선박관리가 선박의 수명이나 운항 능력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 또한, 선주 마케팅을 위해 선박관리회사는 전문화, 윤리경영, 적응력, 규모의 경제, 투명성의 5가지 요인을 갖춰야 함
 - MTM Ship Management의 Rajiv Singhal 상무는 “선박관리회사는 규모와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 전문성 외에도, 새로운 관점, 최신 기술에 대한 통찰력,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가져야 선주에게 맞춤형 솔루션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전 세계 선주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은 각기 다르므로 기존에 내부적으로 수행한 선박관리보다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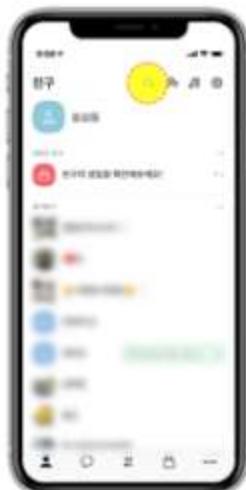
참고자료: <https://splash247.com>(검색일: 2024.05.20.)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